불자 세상보기

대한항공 부사장의 어이없는 '갑질'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이른바 '갑'의 횡포가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야기다. 그녀는 지난 5일 미국의 JFK공항에서 이륙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자사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예정보다 20분이나 늦게 출발시키는 월권을 휘둘렀다. 당시 1등석 승객신분이던 조 부사장은 담당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츠라는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빙하지 않자 책임자인 사무장을 불러 해당 서비스의 절차에 대해 물었고, 당황한 사무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큰 소리로 비행기에서 '내려' 라고 명령한 뒤 일어난 일이었다.

이 와중에 250여명의 승객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함소리와 함께 당황하는 승무원들을 영문도 모른 채 지켜보아야만 했다.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현실의 권력 앞에서 졸지에 '을'의 입장이 되고 말았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순간 비행안전수칙 따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현아 부사장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장녀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기업 오너 3세 공주의 '슈퍼 갑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 차원의 해명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태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자 조현아 부사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기업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이었다. 물론 대한항공 내에서 기내 서비스 및 호텔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승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질책했을 뿐 다른 승객을 불편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등의 항변 말이다.

하지만 이번 해프닝으로 대한항공은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자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도 대한항공의 전근대적인 기업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정서적 반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SNS 시대에 기업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그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행객들이 혹시라도 대한항공 탑승거부운동을 벌인다고 가정해 보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흥망성쇠도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법이다. 벌써부터 외신에서는 차라리 북한의 고려항공을 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만일 조현아 부사장이 관련법규를 어겼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조현아 부사장의 어이없는 갑질 행위는 비단 특정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형성된 '갑-을' 관계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사회현상의 한 단면일 것이다.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자. 국내의 대표적인 유가공업체 가운데 하나인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나이 지긋한 대리점 업주에게 사재기 강요와 폭언을 일삼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이후 인터넷에서 확산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1년 만에 주가 총액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보도를 기억한다.

그 외에도 최근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갑질 사건들은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도덕상황이 얼마나 경박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3년 4월의 '라면상무' 사건과 2013년 9월의 '신문지 폭행 회장' 사건, 2014년 9월의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사건 등은 한결같이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들에 속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빈발하고 있는 교수들의 성추문도 본질적으로는 힘 있는 자들의 갑질과 똑같은 유형의 사건들이다.

그러나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불교에서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친다. 갑과 을의 관계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오늘의 갑이 내일의 을이 되고, 내일의 을이 다시 오늘의 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행무상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갑이니 을이니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다르마의 법칙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화합중(和合衆)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희망을, 아직은 버리지 말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가사체 금강경' 왜 필요한가



조현춘
가사체 금강경 독송회장

필자는 40년 전에 서양의 심리상담에 실망하여 동양 상담심리학을 세우기 위해 이동식, 김종서, 이종익 선생님들과 〈금강경〉 공부하며 동양 사상 공부를 시작했다. 교수로서의 첫 논문은 〈도덕경〉이었으나, 주로 '불경과 심리상담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썼다. 지금은 〈가사체 금강경〉이 심리상담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동양의 대표정신을 유교나 도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세는 불교이다. 〈금강경〉은 한국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며, 팔만대장경 중에서 유일하게 조계종 종헌에 나오는 경전이다.

정신치료 · 심리치료 · 심리상담 · 특수교육 · 미술치료 등의 최종 목적은 빛이 나고 향기 나고 행복한 사람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빛이 나고 향기 나고 행복한 사람은 거의 전부가 〈금강경〉을 독송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이다.

사실 한글 세대인 내가 한문본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한자사전과 씨름한 시간은 참 지난했다. 특히 전통적 번역인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한다' 등의 구절에는 좌절해 한때 〈금강경〉공부를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동양상담심리학을 세우기 위해 교수 10년차에 다시 선배 동학들과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를 구성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조계종 표준 금강경을 저본으로, 여러 범본 등을 대조해 100여 곳(한문 472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구마라집 32장의 게송에는 육유가 있으나 다른 분들의 게송에는 모두 구유가 나온다. 중요내용이 덩어리로 누락된 부분도 제법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한 금강경을 바탕으로, 이 시대 최고 강백인 무비스님과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 학자님들께서 10여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번역했다. 10여년 동안 교수와 박사들이 매주 몇 시간씩 공부하는 모임은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스님까지 대동해 공부를 해왔고, 결과물로 〈가사체 금강경〉을 내놨다.

〈가사체 금강경〉의 특징은 번역이 고어(古語)가 아닌 현대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비 스님과의 연구회의 첫 만남에서 전통적 번역인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한다'를 '장엄하되 장엄했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참으로 장엄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번역했고, 스님도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무비 스님은 한 문장 한 문장 지도해 주시고는 "독송용으로 출간하라"까지 격려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과학적 육하원칙(Scientific 5W 1H)에 근거한다. 일제강점기까지의 〈금강경〉 현토본은 대부분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재사위국 하사'로 되어 있다. 즉 '여시아문'과 '일시에'가 한 문장에 있었다. 그리고 〈금강경〉의 대표 한글 번역자라고 할 수 있는 용성 스님과 백성욱 박사, 대강백 탄허 스님은 모두 '여시아문'과 '일시에'를 한 문장에 두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여시아문'과 '일시에'가 한 문장에 있지 않고, 별도의 문장이 되어버렸다. 부처님의 과학적 육하원칙이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부처님의 과학적 육하원칙은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을 누가 직접 듣고 보았는가'이다. 조계종 표준본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천이백오십 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로 되어 있다. '어느 때~계셨다'는 '이와 같이'에 포함돼 버린다. 따라서 과학적 육하원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필자는 지식 수준의 깨달음 밖에 이루지 못했다. 빛이 나고 향기 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수행에 대해서 물으면 거의 전부가 〈금강경〉을 독송하라고 한다. 〈금강경〉 안에서도 독송의 공덕이 참으로 크다고 한다. 특히 함께 독송하면 참 좋다. 〈가사체 금강경〉의 경우 4자-4자-4자-4자 즉 16자씩 덩어리로 되어있어서 합송하기에 참 좋다. 7~8명만 합송해도, 웅장함과 거룩함이 영혼을 흔든다. 많은 대중들이 계속 염송하여 체화하기를 축원한다. 체화되는 그 순간에 온 몸에서 빛과 향기와 행복이 넘칠 것이다.

社說

불교 유치원 활성화, 미래위한 투자

매년 11~12월이 되면 유아를 둔 엄마들은 한바탕 전쟁을 치룬다. 마음에 드는 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전형일 꼼꼼히 살피고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고 추첨에 운명을 건다. 유치원 입학이 곧 '로또 당첨'이라는 세간의 우스갯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이런 가운데 인성 프로그램 등을 특화한 종립 유치원이 인기가 좋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 취재원은 "종립 유치원이 일반 사립 유치원보다 신뢰가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사)동련의 조사에 따르면 불교 유치원은 264곳, 불교 관련 어린이집은 279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사찰이나 불교 복지관이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색책을 가질 수 없다. 불교적 심성을 영유아 시기부터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교 종립 유치원'이다.

실제 청도 운문사가 2008년 개원한 부설 운문유치원은 2012년 교육부가 선정한 우수 인성교육 유치원으로 꼽혔다. 운문유치원은 다도명상과 가야금 등 전통악기를 이용한 음율 교육을 비롯해 운문사 수목원에서의 숲 체험활동, 유아 체육, 영어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불교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 건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쉬움이 없다. 아이를 당장 불자로 만들 수는 없더라도 불교적 심성을 가진 인재로 양성하는 것도 불교에는 중요한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다. 일선 사찰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유치원을 건립해 운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와 함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사 양성과 교재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지역 불교 유치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불교 유치원 활성화에 사부대중의 노력을 모을 때이다.

이해못할 석굴암 앞 석등 하대석 매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 석굴암 보호각 보수공사가 문화재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석굴암은 최근까지 보호각 보수공사를 위해 철골구조의 가설 덧집으로 덮혀 있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가설 덧집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m 두께의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졌다. 이 콘크리트 바닥 구역에는 석굴암 앞의 석등 하대석의 위치도 포함됐다. 시공사는 석굴암 석등 하대석 부분을 남긴 뒤 주위를 콘크리트로 덧집 기단으로 만들었다. 현재는 뚜껑을 덮어 하대석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석굴암을 찾은 강우방 前국립경주박물관장은 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석굴암 석등은 석굴암의 전체 구조물 중 일부"라며 "보호각을 보수하긴 해야 하지만 굳이 하단부에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 석등의 하대석을 묻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사실 석굴암에 가설 덧집이 세워질 때부터 문제 제기는 있어왔다. 지반 약화, 진동 등으로 석굴암에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한데 굳이 강철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구조물의 시멘트를 제거할 때 석굴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문화재청은 현재 석등 하대석은 나무로 덮은 다음 보호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고 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철거도 현재 무진동 공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알아서 조치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무부처의 장담이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은 것은 '그동안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져 왔던가' 하는 의구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다시 복원할 수 없거나 복원에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된다. 정말 필요한 작업인지 아닌지를 최대한 살피면서 보수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